

# 올여름 폭염, 작은 사업장 노동자에게 유독 가혹한 까닭

임용현 상임활동가

**용현:** 매년 찾아오는 무더위이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조짐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기온도 평년보다 높고 장마철 비도 많아서 그야말로 ‘덥고 습한’ 역대급 여름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여름철 폭염을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재난’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진우:** 여름철 폭염이 ‘기후재난’이라는 점은 정부 통계에서도 이미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산업재해자 수가 총 228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명에서 2025년 7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설노동자가 전체의 46.5%인 106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제조업과 시설관리업이 뒤를 이었습니다. 또 규모별로는 전체 온열질환자의 71%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폭염을 ‘기후재난’으로 규정

**용현:** 이제 더는 폭염을 예외적인 사건으로 취급할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도 폭염 대책을 일찌감치 발표했다고 들었어요.

**진우:** 네.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하며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 개정을 통해 법제화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용현:** 원래 개정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는 ‘폭염에 노출되는 장소에서 작업해 열사병 등의

질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적절한 휴식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정도로 규정하고 있었지요?

**진우:**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였던 것이죠. 이에 비하면 작년에 개정된 규칙은 휴식 부여 기준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용현:** 그럼 이번 정부 대책에서는 지난해와 어떤 점이 달라진 걸까요?

**푸우:**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기준'을 종전보다 강화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기상청은 폭염 경보를 기존의 '주의보-경보' 2단계 특보 체계에서 최상위 단계인 '폭염 중대 경보' 단계를 신설해서 3단계로 개편했는데요. 이에 따라 체감온도 38℃ 이상 일 경우 긴급조치 작업 외 일체의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기상특보체계를 3단계로 세분했다는 건 앞으로 정부가 좀 더 촘촘하게 폭염 대비를 하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용현:** 사실 폭염 시 휴식시간 부여가 사업주의 의무로 법에 들어왔다지만, 여전히 대다수 노동자에게 쉴 권리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잖아요.

**진우:** 정말 그렇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폭염 대책을 속속 내놓고 있는데요. 폭염기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제도와 정책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노동자가 재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특히나 폭염은 선제 대응을 통해서만 인명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용현:** 그러게요. 당장 노동자들이 작업 중에 더위에 지쳐서 쓰러지거나 정신이 혼미해지면 정말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진우:** 그래서 폭염 경보 발령 단계 세분화는 위험에 좀 더 예민한 대응 조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그 자체로 위험에서 노동자가 벗어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노동계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자들이 위험을 느낄 때 작업을 중단할 권리, 휴식을 요구할 권리, 불이익 없이 대피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이죠.

## 폭염 시 휴식의 '보이지 않는 걸림돌', 비용 절감 압박

**용현:** 반월시화공단만 해도 폭염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된 노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폭염특보를 강화하는 것만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진우:** 저 역시 그 점이 우려스럽더라고요. 특히 1970년대 말부터 조성된 반월시화공단의 노후화는 폭염 대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용현:**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산업단지 노후화가 지역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큰 걸림돌로 보고 시설 개선 노력을 한다고는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낡고 오래된 산업단지 시설 문제를 ‘생산성 둔화’나 ‘경쟁력 저하’처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민간 투자 활성화에만 골몰할 뿐, 정작 노동안전보건 관점은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진우:** 이번에 정부가 폭염 대책을 내놓으면서 극단적인 고온이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이라고 규정한 것은 분명 진일보한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나 체계가 미비한 소규모 사업장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용현:**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많은 노력을 투여해야 하는데, 지금 작은사업장들은 그럴 만한 기반이 너무 취약하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거죠?

**진우:** 예를 들어 작년에 한 언론사에서 이런 얘기를 소개한 적이 있거든요. 어느 산업단지에 있는 금속가공업체 사례였는데, 그 사업장은 공장 안에 냉방기기가 있는데도 한여름에도 전혀 가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해당 업체 관계자 말이 “물가도 올랐는데 전기요금까지 부담되니 그냥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내에 적절한 냉방설비를 갖추고도 비용 부담 때문에 웬만하면 가동을 안 한다는 이 얘기는 어쩌면 한 사업장의 이례적인 상황이 아니라 대다수 작은사업장이 마주하는 현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용현:** 폭염 때 에어컨 스위치를 켜는 것조차 사장님 눈치를 봐야 할 정도면, 이런 생산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무슨 일이든지 간에 비용 절감일 것 같아요.

**진우:** 만성적인 인력난, 저임금 장시간 노동, 형식적인 안전교육이나 위험성평가 등 작은 사업장을 둘러싼 많은 문제가 결국엔 비용 절감 압박을 견디지 못한다는 이유로 방치되는 건 아닐까 여겨집니다.

**용현:** 아무래도 그런 문제들이 쌓이고 쌓여서 무더운 여름 작은사업장 노동자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일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겠네요. 오늘 방송에서는 언뜻 폭염과는 상관없어 보이는 작은사업장의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노동자들을 숨막히는 더위 한복판으로 내모는지 알아보았습니다. 



▲ 안산공동체라디오 단원 FM <월담의 노동it수다> 74회 방송 다시듣기.